



KIA 타이거즈의 선발진 줄부상 위기 상황에서 '깜짝 활약'을 펼치며 12번째 우승의 숨은 주역이 된 김도현(왼쪽)과 황동하가 2025시즌 치열한 선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내년엔 개막전부터 뛰며 ‘V13’ 이루겠다”



타이거즈 ‘V12’ 숨은 주역 우완 김도현·황동하 시즌 중 선발 등 178.1이닝…KS에선 ‘믿을맨’

사령탑 첫 해 ‘통합 우승 감독’에 등극한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꼽은 2024시즌 키워드는 ‘선발진’이다. 월 크로우를 시작으로 이의리가 전반기에 팔꿈치 수술로 이탈했고, 운영철도 척추 피로 골절로 자리를 비워야 했다. 여기에 ‘에이스’ 제임스 네일까지 8월 말 수술대에 오르면서 KIA는 구상과는 전혀 다른 선발진으로 시즌을 보냈다. 팀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바꾼 김도현과 황동

하의 그만큼 KIA의 빼놓을 수 없는 우승 주역이다. 선발진 줄부상 속 시즌 중반 선발로 이동한 두 사람은 올 시즌 178.1이닝을 책임져왔다. 첫 한국시리즈에서는 불펜 투수로 나서 ‘뒷심 싸움’에 힘을 보탤다. 10월 25일 4차전에서 팀의 5번째 투수로 나와 한국시리즈를 경험한 김도현은 28일에는 챔피언스필드 분위기를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5차전 선발로 나선던 양현종이 3개의 홈런을 내주는 등 2.2이닝 5실점으로 일찍 물러난 뒤 김

도현이 마운드에 올라 힘으로 삼성을 압도했다. 김도현이 2.1이닝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삼성을 묶자 박도규-장현식-이준영-전상현-정해영의 호투가 이어졌다. 불펜이 견고하게 마운드를 지키자 KIA 타자들이 응답했다. 최형우의 홈런으로 공세를 알린 KIA는 결국 7-5 역전승을 이루고 12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황동하는 적지에서 두 경기에 나와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우승에 힘을 보탤다. 두 경기 모두 마지막 투수로 나온 황동하는 특히 26일에는 9-2 승리를 완성하면서 환호했다. 어느새 ‘좌완 천국’이 되면서 우완이 귀해진 KIA. 우완인 김도현과 황동하는 각각 빠른 공과 빠른 템포라는 장점으로 마운드의 새로운 전력으로 떠올랐다.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바탕으로 커브 위력을 더한 김도현은 “우승해서 너무 좋았다”며 “(5차전에서) 처음에 너무 떨렸는데 주자 나가고 나서는 안 떨렸던 것 같다. 똑같이 하던 대로 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예상보다는 빠르게 1군에 합류했고, 선발로 역할을 하고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까지 되면서 김도현에게는 잊지 못할 2024시즌이 됐다. 김도현은 “초반에 너무 안 좋았는데 감독님 코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똑같이 잘 준비하겠다. 내년에는 개막전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피칭이 강점인 황동하는 동기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가을을 그리고 있다.

황동하는 26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진행된 4차전에서 9-2로 앞선 9회말 등판해 김현근을 3구째 중견수 플라이 아웃으로 잡은 뒤, 대타 김현준을 4구째 2루 땅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김영웅과의 승부에서 5구째 헛스윙 삼진을 잡고 KIA의 승리를 확정했다. 황동하는 “4차전 때 경기 끝나고 크게 세리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손에 공이 긁히면서 상대를 잡는 상상을 하면서 던졌는데, 공이 손에서 빠졌다. 상대가 스윙할지 몰랐는데 스윙을 해서 세리머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웃었다. 황동하는 또 “동기들끼리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다짐했다”며 입단 동기인 최지민, 김도영, 윤도현과 팀의 주축으로 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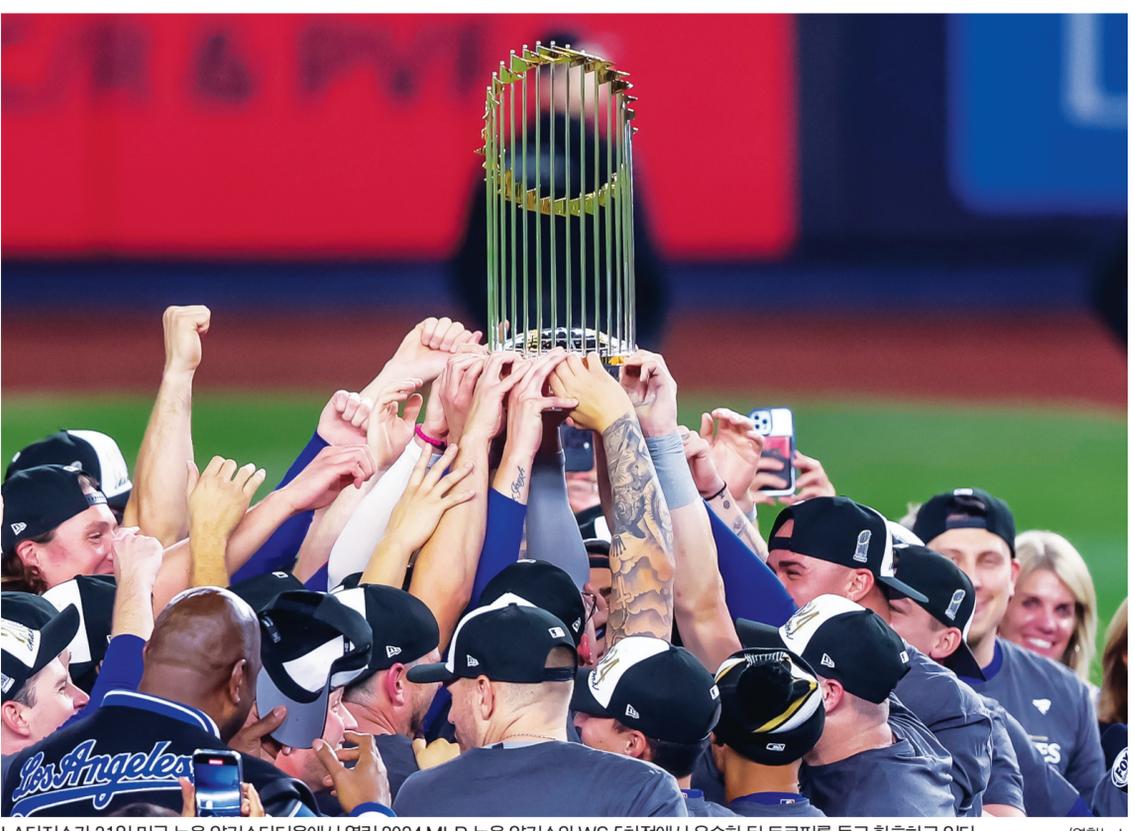
## 프리미어12 누가 될까 야구대표팀, 1~2일 쿠바와 평가전 최종 엔트리 28명 ‘옥석 가리기’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에 참가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쿠바를 상대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최종 엔트리(28명) 결정을 위한 중요한 경기다. 한국은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2일 오후 2시에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쿠바와 맞붙는다. 한국시리즈를 치른 KIA와 삼성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대표팀에서 훈련하는 선수는 35명으로 늘었다. KBO가 애초에 뽑은 소집 명단 35명 중 왼손 투수 손주영(LG), 오른손 투수 원태인, 핵심 외야수 구자욱(이상 삼성)이 부상 탓에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다. 오른손 투수 김시훈(NC), 조민석, 사이드암 이강준(이상 상무)을 추가 소집했지만, 이강준도 팔꿈치 통증으로 하차했다. 류중일 감독과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선발 투수 요원 임찬규(LG)를 발탁하며 빈자리 하나를 메웠다. 류중일 감독은 투수 14명, 포수 2명, 내야수와 외야수를 합쳐 야수 12명으로 최종 엔트리 윤곽을 짰다. 쿠바와 평가전에 출전하는 35명 중 7명은 최종 엔트리에 승선할 수 없다. 선발 요원 고영표, 엄상백(이상 KT), 광빈, 최승용(이상 두산), 임찬규의 승선은 사실상 결정됐다. 불펜의 핵 박영현(KT), 김택연(두산), 베테랑 포수 박동원(LG), 2024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 후보 1순위 김도영(KIA) 등의 프리미어 12 출전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프리미어12는 WBSC 랭킹 상위 12개국이 출전하는 국제대회다. A조(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경기는 11월 10일에 멕시코에서 개막하고, 한국은 B조에 속해 11월 13일부터 대만에서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 다저스 WS 우승, 타이거즈와 닮았네

양키스와 5차전 0-5로 뒤지다 7-6으로 뒤집고 4년만에 우승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를 제패했다. 다저스는 지난 31일 미국 뉴욕 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MLB 뉴욕 양키스와 WS 5차전에서 0-5로 끌려가다가 7-6으로 뒤집는 뒷심을 보여줘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다저스의 WS 우승은 1955·1959·1963·1965·1981·1988·2020년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다저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WS 우승을 따낸 건 창단 첫 WS 우승을 이룬 1955년과 1963년, 1981년 그리고 43년 만에 성사된 이번 맞대결까지 4번째다. 다저스는 이날 경기 초반 홈런 3방을 허용해 0-5로 끌려갔으나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줘 마지막에 우승 트로피를 입맞춤했다. 4회까지 양키스 에이스 케이트 콜에게 한 점도 얻지 못했던 다저스 타선이 0-5로 뒤진 5회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단숨에 5점을 뽑았다. 5회초 무사 1루에서 토미 에드먼이 친 평범한 뜬공이 양키스 중견수 저지의 글러브에 맞고 떨어졌다. 저지의 실책 덕분에 무사 1·2루를 만든 다저스는 후속 타자 윌 스미스의 땅볼 때 유격수 앤서니 볼피의 3루 약속구가 나와 무사 만루로 기회를 이었다. 개빈 렉스와 오타니 쇼헤이가 연달아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무키 베츠의 1루수 내야 땅볼 때 양키스 투수 폴이 1루에 커버를 들어오지 않아 내야안타가 됐다. 다저스는 흔들리던 풀을 상대로 프레디 프리먼이 2타점 적시타, 테오 에르난데스가 2타점 2루타를 두들겨 5-5 동점을 만들었다.



LAD다저스가 31일 미국 뉴욕 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MLB 뉴욕 양키스와 WS 5차전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무하게 리드를 놓친 양키스는 6회말 1사 1·3루에서 나온 스탠틴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6-5로 앞서갔다. 그러자 다저스는 8회초 무사 만루에서 개빈 렉스의 희생플라이로 6-6 동점을 이겼다. 오타니가 포수 타격방해로 진루해 다시 1사 만루, 베츠가 중

견수 쪽으로 공을 띄워 3루에 있던 에드먼을 홈에 불렀다. 7-6으로 앞선 채 9회말을 맞이한 다저스는 3차전 선발로 등판해 5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던 워커 볼러를 마지막 투수로 선택했다. 볼러는 볼피를 3루수 땅볼, 오스틴 웰스를 삼진

처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자 알렉스 버두고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마운드에서 동료들과 뒤엉켰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WS 무대에 진출했던 양키스는 통산 28번째 WS 우승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연합뉴스